

## 『西遊記』의 豬八戒 연구\*

### — 저팔계의 욕망을 중심으로

서정희\*\*

#### 【목 차】

1. 서론
2. 저팔계의 생애와 그의 존재에 내포된 특징
3. 저팔계 — 세속인의 욕망을 대표
4. 저팔계의 수행과 그 의미
5. 결론

#### 【초록】

본고는 豬八戒가 표출하는 다양한 욕망을 불교적 관점을 원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저팔계의 수행과정과 그의 수행에 담겨진 의미를 분석하고, 『西遊記』에서의 저팔계의 역할과 위치를 조명한 논문이다. 저팔계의 욕망세계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그의 생애와 존재에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을 서술한 뒤, 이어서 저팔계의 행동과 심리를 통하여 그의 욕망세계와 그 안에 내재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西遊記』는 저팔계를 통하여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밝히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간존재의 욕망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속인의 욕망을 대표하는 저팔계로 하여금 수행의 길을 가도록 안내한 뒤, 수행의 길에서 그가 표출하는 貪·嗔·痴의 양상을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생명력이 넘치는 저팔계라는 인물을 창조하고, 이를 통하여 소설의 흥미와 재미를 고조시키고 작품 안에 심오한 주제를 불어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키워드】

저팔계(豬八戒), 세속인(世俗人), 욕망(慾望), 수행(修行), 사성제(四聖諦), 풍자(諷刺)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chsuh@pusan.ac.kr)

## 1. 서론

猪八戒는 西遊故事的 발전과정 중 탄생한 5聖 가운데 가장 늦게 등장한 인물이다.<sup>1)</sup> 서유고사는 당나라 현장의 天竺國으로의 모험을 소설화한 작품이므로 이 소설의 제1주인공은 당연히 唐三藏이다. 당삼장에 이어 서유고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孫悟空과 沙悟淨이다. 『西遊記』 관련 문학작품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大唐三藏取經詩話』에 손오공은 ‘猴行者’로 사오정은 ‘深沙神’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 속에서 저팔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저팔계는 언제부터 『서유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팔계가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문헌은 원말명초 楊景賢의 『西遊記雜劇』이며 비슷한 시기 출간된 『西遊記平話』 속에서도 저팔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이들 문헌 속에 묘사된 저팔계의 모습은 100회본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의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100회본 『서유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팔계는 욕심이 많고, 미련한데다 질투심이 많은 소인배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서유기』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팔계가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부정적 이미지만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론가들은 흔히 그를 본능적 욕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서유기』에 등장하는 五聖 중 손오공에 버금가는 사랑을 받으면서 손오공의 영원한 맞수, 경쟁자로서 『서유기』의 스토리를 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팔계는 이처럼 五聖 중 가장 늦게 西遊에 동참하지만 손오공과 함께 『서유기』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하면서 소설의 재미와 흥미를 고조시키고 소설의 주제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팔계에 관한 연구자들의 기존 평가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1) 五聖은 唐三藏, 孫悟空, 猪八戒, 沙悟淨, 龍馬 등 취경사업에 참여하여 東土에 불경을 전한 뒤에 불교의 果位에 오른 5인을 말한다.

2) 『大唐三藏取經詩話』와 『西遊記雜劇』, 그리고 『西遊記平話』의 출간 시기 및 이 문헌들과 『西遊記』와의 연관관계 연구는 鄭明嫻著, 『西遊記探源』, 文開出版社, 1982, pp.3-11, 胡光舟著, 『吳承恩和西遊記』, 萬卷樓圖書公司, 1993, pp.55-73, 竺洪派著, 『四百年西遊記學術史』, 復旦大學出版社, 2006, pp.227-265 참조.

『西遊記平話』는 현재 일부분이 잔존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永樂大典』에 남아 있는 「夢斬涇河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의 한어 교과서인 『朴通事諺解』에 보존되어 있는 「車遲國鬪勝」이다. 『朴通事諺解』注에 『西遊記平話』에서 인용한 「黑猪精猪八戒」라는 저팔계 前身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張錦池著, 『西遊記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p.158 참조.

3) 저팔계의 초기 형상에 대한 연구는 張錦池著, 같은 책, 「說猪八戒形象演化的原型問題」, pp.167-184, 溫斌著, 「楊景賢與猪八戒形象塑造」, 『山西財經大學學報』, 第34卷 第4期, 2012.12 참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五聖 중 세속인으로서의 욕망을 가장 많이 지녔기 때문이다.<sup>4)</sup> 그리하여 그는 흔히 밥통, 식충이, 바보, 멍청이 등 수많은 호칭으로 폄훼되어 불린다. 그렇지만 본능적 욕망을 희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 저팔계가 없었다면, 『서유기』는 해학과 유머어가 넘치면서도 깊은 사상적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저팔계가 표출하는 욕망을 불교의 몇 가지 관점을 원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욕망의 양상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아래 저팔계의 수행과정과 그의 수행에 담겨진 의미를 고찰할 생각이다.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을 통하여 인간존재의 욕망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팔계의 욕망세계를 고찰하기 전에 그의 개인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팔계의 생애와 그의 존재에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저팔계의 행동과 심리를 통하여 그의 욕망 세계와 그 안에 내재하는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저팔계의 생애와 그의 존재에 내포된 특징

『서유기』 제19회 「운잔동에서 오공은 팔계를 항복시키고, 浮屠山에서 현장은 심경을 전수 받다(雲棧洞悟空收八戒, 浮屠山玄奘收心經)」에 저팔계의 출신, 형상, 수련과정, 법력, 지상세계로의 추방 등등에 관한 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손오공과의 接戰 과정 중 저팔계가 자술한 바의 내용에 의한 그의 일생 행적은 아래와 같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심성이 졸렬해서 끝없이 한가함을 탐하고 게으름을 피웠다. 성정을 기르거나 진리를 닦은 적 없이 어지럽고 미혹된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 한가한 때 우연히 진짜 신선 만났더니 앉은 자리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말해 주셨다. 마음 돌려 세속에 떨어지지 말라 하시며 살생은 큰 죄업을 쌓은 것이라. 어느 날 때가 되어 목숨이 다하면 여덟 고난과 세고행 길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셨다. 그 말 듣고 뜻을 바꾸어 수행하기로 결심했고 그 말 듣고 마음 돌려 묘결을 구했지. 인연 있어 그 자리에서 스승으로 모시니 하늘의 관문과 지옥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 불로장생의 구전대환단을 전해 받고, 밤낮없이 공부하니 월 새가 없구나. …… 삼화취정하니 근본으로 돌아가고, 오기조원하니 투철하게 통하였다.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어 비승하니, 하늘의 신선들이 쌍쌍이 나와 영접하더라. …… 칙명으로 원수에 봉해져 천하를 다스리게 되고, 수군을 통솔하는 부절을 받았네. 그런데 서왕모가 반도연을 베풀고, 요지에 잔치를 베풀어 귀빈들을 초청했네. 이 사람은 술 취하여 곤드레만드레, 이리 쓰러지고 저리 뒹굴어 정신없이 주정을 부렸구나. 술김에 영웅 본색 뽐낸답시고 뛰어든 곳이 광한궁이라, 멋쟁이 선녀들이 영접을 나왔네. 그 아리따운 용모를 보니 홀딱 반해서, 저 옛날 범속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위아래 구별도 전혀 못하고 존비귀천의 생각을 잊었으니, 월궁의 향아님을 부여잡고 동침하자 놀라셨네. 향아님은 요리조리 몸을 빼어 이리저리 피하니, 내 마음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네. …… 색심이 하늘처럼 높아 고함지르니 우렛소리같이 울리고, 하마터면 천궁을 뒤흔들

어 무너뜨릴 뻔했네. …… 영소전 앞으로 끌려 나가 옥황상제를 뵈었더니, 형률에 따라 문초하고 극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 형량 고쳐 때린 철퇴가 무려 2천대, 살점이 튀고 가죽 터져 뼈마디가 모조리 으스러졌네. 석방되어 천궁에서 쫓겨난 신세, 북릉산 아래 내려와 가업을 일으켜 세우기로 했으나 내 죄가 많은 탓에 돼지의 태중에 잘못 들어, 속명을 저장랍이라 하는 돼지로 태어났다네. (自小生來心性拙, 貪閑愛懶無休歇. 不曾養性與修真, 混沌迷心熬日月. 忽然閑裏遇眞仙, 就把寒溫坐下說. 勸我回心莫墮凡. 傷生造下無邊孽. 有朝大限命終時, 八難三途悔不喋. 聽言意轉要修行, 聞語心回求妙訣. 有緣立地拜爲師, 指示天關並地闕. 得傳九轉大丸丹, 工夫晝夜無時輟. …… 三花聚頂得歸根, 五氣朝元通透徹. 功圓行滿却飛昇, 天仙對對來迎接. …… 勅封元帥管天下, 總督水兵稱憲節. 只因王母會蟠桃, 開宴瑤池邀衆客. 那時酒醉意昏沈, 東倒西歪亂撒潑. 逞雄撞入廣寒宮, 風流仙子來相接. 見他容貌挾人魂, 舊日凡心難得滅. 全無上下失尊卑, 扯住嫦娥要陪歌. 再三再四不依從, 東躲西藏心不悅. …… 色胆如天叫似雷, 險些震倒天關闕. …… 押赴靈霄見玉皇, 依律問成該處決. …… 改刑重責二千鎰, 肉綻皮開骨將拆. 放生遭貶出天關, 福陵山下圖家業. 我因有罪錯投胎, 俗名喚做豬剛鬣.)<sup>5)</sup>

위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취경사업에 동참하기 전의 저팔계의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저팔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천성이 어리석고, 놀기를 좋아하여 미망 속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
- ②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그는 眞仙을 만나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
- ③ 진선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한 결과 正果를 얻게 된다.
- ④ 정과를 이룬 뒤 옥황상제에게서 천상세계의 은하수를 관장하는 天蓬元帥의 직을 하사 받는다.
- ⑤ 西王母가 연 蟠桃大會에서 술에 취한 저팔계는 술김에 광한궁에 들어가 항아를 희롱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 ⑥ 항아를 희롱한 죄로 인해 철퇴 2000대를 맞은 뒤에 지상세계로 추방된다.
- ⑦ 지상세계로 추방되면서 돼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여 그는 돼지 요괴로 탄생하게 된다.

평범한 인간이었던 저팔계는 신선을 만나 인간이 가진 타기를 제거하고 청정한 몸을 만든 뒤 최고의 수련을 완성하여 ‘三花聚頂’, ‘五氣朝元’의 경지에 이르면서 신선의 몸을 얻게 된다.<sup>6)</sup> 그러나 가장 본능적 욕망에 속하는 색정에 대한 미련과 욕망이 남아 있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술김에 항아를 희롱하는 대죄를 범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인간세상으로 쫓겨난다.

추방되는 과정 중 돼지의 자궁으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로 태어난 그는 팔럭이는 두 개의 큰 귀와 길게 튀어 나온 입, 앞으로 볼록 튀어나온 배, 그리고 시커먼 얼굴을 가진

5) 吳承恩, 『西遊記』, 華正書局, 1978, pp.212-213.

6) 三花聚頂이란 도교에서 精·氣·神의 세 가지 精華를 인체의 정수리에 모아 최고의 수련 경지에 오른 것을 말한다. 五氣朝元은 도를 이룰 때 肝·腎·心·脾·肺에서 만들어진 五行의 기를 眞氣로 변화시켜 정수리에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元은 六陽의 으뜸, 곧 두뇌를 말한다.

이유로 ‘야생돼지(野豬)’, ‘돼지요괴(豬精)’, ‘돼지괴물(豬魘)’ 등의 호칭으로 불린다.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던 저팔계는 관세음보살로부터 요괴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취경 사업에 동참하여 이전의 죄를 속죄하고 새 삶을 살라는 권유를 받는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수계를 받고 그의 몸을 성으로 삼아(摩頂受戒, 指身爲姓)” 성은 豬로, 悟能이라는 법명을 하사받는다.<sup>7)</sup> 수계를 받은 저팔계는 요괴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烏斯藏國 高老莊의 사위로 들어가 근면하고 성실한 농부의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취경하러 갈 사람을 기다린다.

취경사업에 동참한 그는 당삼장을 보호하고 취경단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고 운반하며 손오공과 함께 요괴들을 물리치고, 재난을 극복하면서 10만 8천리 험난한 서행 길을 완주한 뒤, 淨壇使者에 봉해진다.

위의 저팔계의 인생노정으로부터 그의 존재와 법력 등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저팔계는 자신의 생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에서 천상세계의 천봉원수로 천봉원수에서 다시 지상의 돼지 요괴로 변신을 거듭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교의 신인 정단사자에 봉해진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차원을 뛰어넘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인간 존재란 불변의 실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遭遇에 따라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존재는 욕도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기 전까지 생명의 순환 구조 속에서 언제라도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둘째, 저팔계는 人性和 獸性, 神性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복합체이다. 그는 인간의 사상 감정인 회로애락의 감정과 사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적 결점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식색을 탐하고, 가정생활을 그리워하며, 이해타산에 빠르며 질투심이 강한 면모는 그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獸性은 불교에 귀의하기 전 福陵山 雲棧洞에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요괴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하고 흉측한 돼지 요괴의 모습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적 특징은 그의 獸性을 대표한다. 비바람을 부르고,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구비하고 천상세계에 올라가 은하수를 관촬하는 천봉원수가 된 것은 그의 신성을 대표한다. 이처럼 그의 존재 안에는 인성, 수성, 신성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여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욕망의 유무, 욕망의 크기에 따라 互換,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저팔계는 신통력(법력)을 지니고 있다. 『서유기』에서 모든 신과 요괴들의 법력의 크기는 法身과 法寶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팔계는 天罡數 36般 변화에 능통한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손오공과 같은 정교한 변화 능력은 없지만 크기가 큰 사물로 변화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는 산, 나무, 돌맹이, 물소, 낙타, 거한 등으로 자유롭게 변화한다. 그리고 천봉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를 부르고 돌과

7) 『西遊記』, 제8회, p.87.

8) 이는 저팔계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특징이 아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역시 저팔계처럼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차원을 상승시켜 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타락하여 요괴가 될 수도 있다. 『서유기』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존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모래를 날게 하는 재주를 지녔으며 비와 바람을 부리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 또 하늘을 나는 재주도 있다. 그가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법보는 ‘上寶沁金鈿’로 9개의 이빨을 지니고 있으며 5천 48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저팔계의 무기는 손오공의 ‘如意金箍棒’과 사오정의 ‘降妖寶杖’과 함께 천하의 보물이다.

넷째, 저팔계는 수행을 통해 천상세계의 신선인 천봉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불교의 신인 정단사자에 오른다. 저팔계는 도교의 수련을 통하여 정과를 얻었지만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미세한 욕망까지 다 제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결과, 색정심이 술김에 폭발하면서 항아를 희롱하는 죄를 짓게 된다. 지상세계로 추방된 뒤, 불교에 입문하여 취경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그는 정단사자에 봉해진다. 그러나 그가 불교의 정과를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를 정단사자로 봉하면서 그가 색정심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 존재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저팔계는 비록 불교의 神位에 올랐지만 제어하지 못한 욕망을 마음의 심연 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팔계의 생애와 그의 존재 안에 내재된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저팔계란 인물이 단순히 소인배로 정의내릴 수 있는 평면적인 인물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 특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저팔계 — 세속인의 욕망을 대표

기존의 평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저팔계를 『서유기』 五聖 가운데 세속적인 욕망을 가장 많이 지닌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李辰冬은 팔계를 ‘세속의 현실주의자(世俗的現實主義者)’로, 方瑜는 ‘물욕을 상징하는(物欲象徵的)’ 인물로, 傅述先은 ‘식색의 욕망(食色之欲)’을 구체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夏志清은 ‘세속생활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沉湎於世俗生活享受的人)’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9)</sup> 이를 종합해 보면 저팔계는 세속인으로서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정신적 수준이 낮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지니고 서행 길에 나선 당삼장, 명예욕과 자부심이 유난히 강한 손오공, 묵묵히 서행 길을 가는 사오정과 달리 그는 식욕, 색욕, 물욕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해득실을 따져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며,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사람들이 보통 욕망을 은밀하게 감추거나 숨기는 이중성을 가지는데 반해 그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에 따라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욕망에 충실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저팔계의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저팔계의 욕망은 어리석음(無明)에서 비롯된다.<sup>10)</sup> 어리석음은 늘 대상에 대한 욕망을 멈추

9) 李辰冬, 『三國·水滸與西遊』, 水牛出版社, 1977, p.129., 方瑜, 「論西遊記——一個智慧的喜劇(上)」, 『中外文學』, 第6卷 第5期, 1977.10, p.20., 傅述先, 「西遊記中五聖的關係」, 『中華文化復興月刊』, 第9卷 第5期, 1976.5, p.197., 夏志清, 『中國古典小說史論』, 第4章 「西遊記」, 江西人民出版社, 2003, p.149.

10) 無明이란 올바른 법(正法), 즉 진리에 대한 무지를 가리킨다. 고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므

지 않으면서 근원적인 결핍 상태에 머물게 한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결핍된 것을 추구하여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 마음이 바로 욕망이다. 결핍이 해소되었을 때, 인간은 쾌감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므로 인간은 쾌감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반대로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고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팔계가 가야만 하는 10만 8천리 서천 길은 흉측한 요괴들이 취경단의 목숨을 노리고 무시무시한 자연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절대적 결핍의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먹을 것, 쉴 곳 등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생겨나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 분투한다. 당삼장의 보호자요, 성지 참배자로서 서천 길에 오른 저팔계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한 이 공간을 여행하면서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거하고 세계와 존재의 본질인 空意를 깨달아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는 데에 있다.<sup>11)</sup> 하지만 저팔계는 서행 길 내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정신적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욕동의 지배 아래서 배고픔과 성적 갈애의 고통에 시달린다.

그의 욕망은 다른 어떤 마음이나 이성의 작용 보다 우선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여 생기는 느낌, 즉 배고픔, 잠, 성적 욕구 등등의 모든 감각적 욕망에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켜 쾌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貪心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쾌감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여 일어나는 성내는 마음을 瞋心이라 한다. 이 탐심과 진심이 교차하면서 무한히 반복, 확대 생산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이다. 탐심과 진심은 무명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三毒이다. 삼독의 무명은 욕망과 성냄을 유도하여 모든 존재를 욕도윤회에 가두어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저팔계의 어리석음(무명)은 그를 감각적 쾌감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이끌어 그를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서행 길이란 전 노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觀하여 욕망의 空性を 깨달아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승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그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지속한다. 그는 생명, 식, 색, 재물 등을 탐하며(탐심) 이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성을 내며(진심)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이처럼 저팔계는 서유

로 무명은 모든 고통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무명은 12연기에 첫 번째에 등장하는데,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연기 과정을 통해 고통의 발생과정을 설명한다.

11) 서행의 과정을 통해 般若空意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완성은 저팔계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이 공간을 지나서 서천으로 향하는 取經團員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12) 저팔계의 욕망이 생성되는 과정은 12연기법을 참조할 것. 12연기법에 의하면 (1)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2) 성향들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3) 지각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4) 명칭과 가시적 형태가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5) 여섯 감각들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6) 접촉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7) 느낌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8) 갈애가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9) 집착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10) 생 존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11) 탄생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12) 늙음(곧 파괴)과 죽음, 슬픔, 비탄, 고뇌, 낙담, 혼란이 발생한다. 이것이 모든 고통 덩어리의 기원이다. 티탄 페터저, 김성철역,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씨아이·알, 2009, p.129 참조.

길 내내 끝임 없이 욕망을 표출한다. 그가 집착하는 욕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생명에 대한 욕망, (2) 몸에 대한 욕망 — 食慾, 色慾, (3)재물에 대한 욕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생명에 대한 욕망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은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며 그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한다. 생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생명체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욕구로 본능에 속한다. 저팔계 역시 생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는 제일 먼저 도망을 가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등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취한다. 사실 취경단의 목적지인 서천으로 가는 길은 온갖 고난과 장애가 가로막고 있는 험난한 여행길이다. 수많은 요괴들이 취경단원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며 거칠고 위험한 야생의 자연이 그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또 취경단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과 충돌 역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저팔계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 안위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생명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생명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생명을 다음 세대를 통하여 존속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저팔계는 서행 길 내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가정생활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저팔계는 재산이 있는 예쁜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바로 취경사업을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남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sup>13)</sup> 그리하여 그는 늘 高老莊에 돌아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농사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염원을 노래한다.

생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지만 수행자에게는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로 이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자유자재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으며 원만공덕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저팔계는 비록 수행의 길에 올랐지만 결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

## 2) 몸에 대한 욕망 — 食慾, 色慾

인간에게는 몸이 있으므로 해서 생겨나는 욕망이 있다. 그것은 食慾과 色慾이다. 食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 색은 성적인 쾌감과 종족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 (1) 식욕

저팔계의 식욕은 끈끈이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늘 배가 고프며

13) 저팔계는 재물이 없는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저팔계는 아름다운 아내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생업이 보장된 自作農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늘 먹을 것을 찾으며 먹을 것 앞에서는 체면도 양보도 없이 배가 터지도록 게걸스럽게 먹는다. 그가 먹보, 식충이, 밥통이라고 불리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는 배고픈 상태에서 잠시 쉬거나 머물면서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욕동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 팔계의 장인 高老는 그의 식탐을 “뱃구레는 또 얼마나 큰지, 한 끼니에 쌀밥을 네댓 말씩이나 먹어 치우고, 점심에는 밀가루 구운 떡을 100여 개나 먹어야 비로소 직성이 풀린답니다. (食腸却又甚大：一頓要吃三五斗飯；早間點心，也得百十個燒餅才够.)”라고 표현한다.<sup>14)</sup> 항상 배가 고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를 손오공은 ‘아귀(餓鬼)’라고 부른다. 당삼장 역시 저팔계를 가리켜 ‘밥만 축내는 미련통이(饞糟的夯貨)’라고 욕한다. 서천에 도달한 이후, 석가모니부처는 그를 정단사자에 봉하면서 “그대는 입심도 세고 몸은 게으르며, 뱃구레가 크다. 무릇 이 四大部洲에는 나의 가르침을 우러러 받드는 사람이 적잖이 많다. 모든 불사에 있어 제단을 깨끗이 하는 임무를 그대에게 맡겼으니, 이는 얻는 것이 많은 품계이다. (因汝口壯身慵，食腸寬大。蓋天下四大部洲瞻仰吾教者甚多。凡諸佛事，教汝淨壇，乃是個有受用的品級.)”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불단에 바쳐진 공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직무를 맡기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식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 같은 저팔계의 끝없는 식탐은 그의 깨달음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 (2) 색욕

저팔계가 탐하는 또 다른 몸의 욕망은 색욕이다. 색욕은 자신과는 다른 이성을 갈망하면서 타인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이다. 식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생명을 지속시키는 에너지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저팔계의 최대 희망이다. 팔계는 원래 하늘의 천봉원수였는데 항아를 희롱한 죄를 범해 인간세계로 쫓겨난 사람이다. 팔계가 색을 이처럼 좋아하는 것은 전생의 업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저팔계가 겪는 색욕에 관한 첫 번째 시험은 ‘네 성인이 信心을 시험하다(四聖試禪心)’에 서이다.<sup>16)</sup> 4명의 보살이 아름다운 미녀로 변신하여 삼장 일행을 유혹하는데 당삼장, 손오공, 사오정은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겠다는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으나 팔계만이 그곳에 남아 아름다운 미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미색과 부귀영화 앞에 선 저팔계는 “그 집이 그토록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요, 딸들이 모두 미색이란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먹거리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의자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어도 바늘방석이요, 자꾸만 비비 꼬이는 몸뚱이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那八戒聞得這般富貴，這般美色，他却心痒難撓；坐在那椅子上，一似針戮屁股，左扭右扭的，忍耐不住.)”<sup>17)</sup> 손오공이 그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어 한다고 면박을 주자 그는 “모두들 이런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만 뒤집어씌워 망신을 주는 거요? 속담에 ‘중은 여색에 굶주린 귀신’이라고 했는데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소?(大家都有此心，獨拿老猪出醜。常言道：

14) 『西遊記』, 제19회, p.207.

15) 『西遊記』, 제100회, p.1130.

16) 『西遊記』, 제23회, 「三藏不忘本，四聖試禪心」

17) 『西遊記』, 제23회, p.260.

‘和尚是色中餓鬼’ 那個不要如此?)”라고 항변을 늘어놓는다.<sup>18)</sup> 결과적으로 그는 부잣집 사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벌을 받는다. 팔계는 이 시험을 거치면서도 여색에 대한 교훈이나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쁜 여자만 보면 서툰 행을 그만 두고 보따리에 든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각기 제 갈 길을 가자고 보챈다. 盤絲洞에서 7명의 아름다운 요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자 저팔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자들을 희롱한다. 메기로 변하여 “그렇게 요괴들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쭈시고 돌아다녔다. (只在那腿襠裏亂鑽.)”는 장면은 매우 노골적으로 저팔계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sup>19)</sup> 제54회에 西梁國의 여왕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이 질 질 흐르고, 심장은 마구 방망이질 쳤다. 순식간에 뼈가 흐물흐물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이 마치 눈 사자가 불 앞으로 달려든 것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忍不住口嘴流涎, 心頭撞鹿, 一時間骨軟筋麻, 好便似雪獅子向火, 不覺的都化去也.)”라고 색을 탐하는 저팔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sup>20)</sup> 그의 색에 대한 이와 같은 갈망과 탐닉은 서행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 3) 재물에 대한 욕망

저팔계는 물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 손오공, 당삼장, 사오정 등이 재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반하여 그는 재물을 탐한다. 10만 8천리 머나먼 길에서 무거운 짐을 책임지고 지고 가야 하는 그에게 재물이란 커다란 부담이 될 터인데도 그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애를 쓴다. 그는 시주로 받은 돈과 물건 등을 다른 구성원 몰래 모아서 취경 길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 불교 공동체에서는 사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팔계는 늘 싹지 돈을 만들어 숨겨 놓는다.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재물에 집착하는 그의 욕심을 알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욕망, 재물욕 외에도 그는 취경단 안에서 사부인 당삼장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공을 세우는 손오공을 질투하여 손오공과 당삼장 사이를 이간질 하는 등 약삭빠른 행동을 취하여 자기의 이득을 도모한다. 이는 작은 사회 조직인 취경단 안에서 우두머리인 사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통하여 확고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의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저팔계에게서 개인 혹은 집단 등의 행동이나 뜻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과 집단에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고자하는 권력욕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조종하려고 하는 권력욕을 가진 손오공과 달리 저팔계에게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저팔계의 욕망이 생리적 욕망, 본능적 욕망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팔계에게는 생명, 식과 색,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이 보이나 비교적 높은 차원의

18) 『西遊記』, 제23회, p.262.

19) 『西遊記』, 제72회, p.826.

20) 『西遊記』, 제54회, p.626.

욕망인 자아 성취나 구도에 대한 열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뿐, 정신적 경지를 높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욕망이 초래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그는 무지로 인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뿐, 욕망이 가져오는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욕망은 괴로움을 낳고 또 괴로움은 욕망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욕망에 의해 조종되는 삶은 나를 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지혜를 잃게 하고 곤혹을 일으키며 해탈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저팔계의 욕망은 저팔계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며 나아가 취경단원 전체의 갈등을 야기하여 서행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

#### 4. 저팔계의 수행과 그 의미

저팔계는 비록 서유의 길에 자의로 합류하였지만 그가 서행 길에서 표출한 행위와 심리를 보면 세속인의 욕망을 지닌 범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1)</sup> 그는 서행 길 내내 감각적 즐거움을 탐하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다. 왜냐하면 그는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에 의하면 생의 본질은 고통(苦諦)이며 이 고통의 원인은 욕망을 무한히 쌓기(集諦)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욕망은 사람의 몸에서 비롯되며 眼·耳·鼻·舌·身이 色·聲·香·味·觸과 접촉하여 생긴 느낌에서 생겨나며 인간의 貪·瞋·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성된 욕망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생의 본질을 고라고 천명한 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욕망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滅諦를 제시하고 다시 해탈에 도달하는 방법인 道諦를 제시하고 있다. 이 苦集滅道 四聖諦는 불교의 핵심이론으로 중생에게 고통의 원인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일체의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자재한 무무무념,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감각적 욕망을 차원 높은 욕망으로 전환시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다.<sup>22)</sup> 즉 고통의 원인인 욕망의 실체를 觀하여 욕망을 소멸하는 길(道)을 제시함으로써 고통을 넘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멸과 도의 방법을 통하여 ‘五蘊皆空, 度一切苦厄.’의 원만공덕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sup>23)</sup>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만공

21) 저팔계는 『서유기』 제8회에서 관세음보살의 권유를 받아 자의로 취경사업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취경인이 오기를 기다린다. 손오공이 긴고테를 머리에 두르고서야 비로소 당삼장을 따라 서행 길에 오른 것과는 차이가 있다.

22) 사성제에서 제(諦, satya)란 ‘진리’ 또는 ‘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성제란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고(苦)성제, 집(集)성제, 멸(滅)성제, 도(道)성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고집멸도’라고도 한다. 사성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와 ‘고의 원인’, 그리고 ‘고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2012, p.89.

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道諦에서는 팔정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팔정도를 지킴으로써 고통을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sup>24)</sup>

저팔계는 다른 수행자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제거하고(멸) 원만공덕을 성취하기 위해 서행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서유 길 내내 저팔계가 표출하는 행동과 심리 활동을 보면, 그는 시종 일관 변함없이 욕동의 지배를 받는 인물로서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도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체적 방법인 팔정도 중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그는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할 뿐이다. 여전히 그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음식, 성, 수면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집착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의 변하지 않는 식탐과 昏沈, 그리고 성에 대한 갈망은 이와 같은 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생명과 자아에 집착하여 空意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 만약 그가 모든 현상의 실상인 空性を 깨달았다면 자기의 생명과 몸에 그토록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며 감각의 집착에서 해방되어 열반의 경지에 올랐을 것이다.<sup>25)</sup> 그러나 그는 현상의 본질과 그 연관관계를 꿰뚫어 봄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욕망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서행 길의 종착지에 이르러서도 저팔계의 욕망에는 변화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정신적 깨달음의 징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서유기』 후반부인 제94회에 천축국 가짜 공주가 던진 공에 맞아 부마로 낙점된 당삼장을 위해 국왕이 베푼 연회에서 “팔계는 먹고, 또 퍼 담고, 퍼 담은 것을 또 먹고, 배가 터질 지경으로 포식을 한 뒤에야 비로소 손을 가까스로 멈추었다. (那八戒喫了又添, 添了又喫. 直喫得撐腸拄腹, 方纔住手.)”라고 할 정도로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sup>26)</sup> 또 가짜 공주 행세를 하던 광한궁의 옥토끼를 데리러 온 항아를 보자 저팔계는 바로 “음탕한 욕심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공으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예상선자를 덥석 끌어안으며 ‘이것 봐요, 아가씨. 우리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가 아니요? 그러니 나하고 같이 한 번 놀아봅시다. (動了慾心, 忍不住, 跳在空中, 把霓裳仙子抱住道: 姐姐, 我與你是舊相識, 我和你耍子兒去也.)”라고 수작을 건넨다.<sup>27)</sup> 결국 저팔계는 손오공에게 연거푸 따귀를 얻어맞은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 서행의 종착지에 거의 다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팔계는 여전히 식탐과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가 세속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범부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제거하고 자유자재에 이르는 길을 상징하는 10만 8천리 서행 길을 완주하는 내내 저팔계는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고, 조절하고, 초월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팔계가 마지막에 과위에 오른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팔계는 정과를 얻었다고는 하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다고 볼

23) 해탈하여 피안에 이르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다. 그러나 이 차원의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감각적 욕망과는 차원이 다른 욕망이다.

24)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결심,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주의집중, 바른 삼매 등 8가지를 지칭한다. 티만 페터저, 김성철역,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pp.77-80 참조.

25) 저팔계가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본성(自性)을 가진 독립된 자기 실체가 아니라는 諸法無我사상과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하여 영구불변의 자기 동질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諸行無常 사상을 깨달았다면 그는 욕망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다.

26) 『西遊記』, 제94회, p.1062.

27) 『西遊記』, 제95회, p.1076.

수 없다. 부처님이 저팔계를 정단사자로 봉할 때, 그의 공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문으로 들어와 성승을 줄곧 보호하여 왔으되, 어리석은 마음과 색정심을 아직 다 씻어내지는 못하였다. (入我沙門, 保聖僧在路, 却又有頑心. 色情未泯.)”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8)</sup> 부처님은 저팔계에게 성승을 보호한 공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미세한 색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아에 집착하는 고집스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저팔계가 욕망을 다 제거하지 못한 채 과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팔계는 당삼장, 손오공, 사오정 등이 모두 부처의 과위에 오른데 반해 자신만이 부처보다 아래 등급인 정단사자에 봉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 때, 부처님은 그에게 정단사자란 天下四大部州에서 올리는 공물을 가장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직책이라는 말로 그를 회유한다. 어쨌든 이 자리는 저팔계가 집착하는 食과 연결된 직책으로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팔계에게 안성맞춤의 자리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취경사업의 최종 목적지인 서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팔계는 여전히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통의 서행 길을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팔계는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욕망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에 끌려 다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저팔계가 자기 각성 없이 획득한 정단사자란 과위는 수행에 대한 조롱이며 풍자이다. 저팔계의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서유기』의 주제 가 희극과 풍자적 구조 위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저팔계 형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욕망에 대한 강렬한 추구이다. 그는 색을 탐하고 먹을 것에 탐닉하며, 잠과 재물에 탐닉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안일함을 추구하며 또 취경단 사이에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이로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망이 모두 팔계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속인의 욕망을 대표하는 저팔계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은 바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자재한 원만공덕의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욕망이 초래한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욕망의 실체를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선택했지만 감각의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느라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감각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을 지닌 상태에서는 사물의 진상을 통찰하고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불러오고 탐욕이 늘어나는 만큼 괴로움도 늘어나게 된다.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탐욕을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즉 탐·진·치의 삼독을 제거하지 못한 채 걸어난 수행의 길은 그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지

28) 『西遊記』, 제100회, p.1130.

못하여 그로 하여금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인 부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팔계가 불교의 과위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것은 수행에 대한 조롱이요 풍자이다. 이로부터 『서유기』의 주제가 풍자와 해학 위에 설정되어 인생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저팔계의 욕망세계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석한 결과, 저팔계의 수행과 수행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유기』는 저팔계란 인물을 통하여 세속인이 지닌 욕망의 실제적 면모를 보여주며 세속인이 어떻게 이 수행의 길을 걸어갔는지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저팔계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한 채 과위에 오르는데 이는 『서유기』의 주제가 풍자와 해학의 기초 위에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저팔계의 욕망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삼독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욕망은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기와 활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작품의 주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서유기』에는 불교 사상 외에도 다양한 사상이 혼재되어 녹아 있다. 불교적 관점에 의하면 저팔계는 깨달음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수행자이지만, 『서유기』 탄생의 또 다른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心學의 입장에 의하면 저팔계의 욕망은 반드시 부정되어야만 하는 사악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개인의 욕망을 긍정적인 심학의 영향 아래 탄생한 저팔계는 결코 혐오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서유기』의 재미와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팔계의 욕망세계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결과, 저팔계란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밝히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속인을 대표하는 저팔계로 하여금 욕망을 제거하는 수행의 길을 가도록 안내한 뒤, 수행의 길에서 그가 표출하는 탐·진·치의 양상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생명력이 넘치는 저팔계란 인물을 창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설의 흥미와 재미를 고조시키고 작품 안에 심오한 주제를 불어넣어 불후의 역작을 완성하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吳承恩, 『西遊記』, 華正書局, 1978.  
 李辰冬, 『三國·水滸與西遊』, 水牛出版社, 1977.  
 鄭明嫻, 『西遊記探源』(上·下), 文開出版社, 1982.  
 趙天池, 『西遊記探微』, 巨流圖書公司, 1983.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學生書局, 1984.  
 余國藩著, 李爽學譯, 『余國藩西遊記論集』, 聯經出版社, 1989.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90.  
 胡光舟, 『吳承恩和西遊記』, 萬卷樓圖書公司, 1993.  
 劉蔭柏, 『西遊記發微』, 文津出版社, 1995.

- 西遊記文化學刊編委會, 『西遊記文化學刊1』, 東方出版社, 1998.
- 史鐵良 等, 『明代文學研究』, 北京出版社, 2001.
- 張錦池, 『西遊記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 夏志清著, 胡益民 等譯, 『中國古典小說史論』, 江西人民出版社, 2003.
- 程文超 等著, 『欲望的重新敘述』,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 李明軍, 『禁忌與放縱』, 齊魯書社, 2005.
- 竺洪波, 『四百年西遊記學術史』, 復旦大學出版社, 2006.
- 魏崇新 等著, 『中國文學史話—第七卷明代文學』, 吉林文史出版社, 2008.
- 傅述先, 「西遊記中五聖的關係」, 『中華文化復興月刊』, 第9卷 第5期, 1976.5.
- 方 瑜, 「論西遊記——一個智慧的喜劇」(上·下), 『中外文學』, 第6卷 第5期, 1977.10.
- 薛 梅, 「心學視野下的西遊記研究」, 『明清小說研究』, 第92期, 2009.2.
- 틸만 페터저, 김성철 역,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씨아이·알, 2009.
- 정준영 등저, 『욕망-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운주사, 2008.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2012.
- 서정희, 「心學과 『西遊記』의 주제연구」, 『中國語文學』, 제62집, 嶺南中國語文學會, 2013.4.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豬八戒, 世俗人, 慾望, 修行, 四聖諦, 諷刺		
Key Words	영문	ZhuBajie, secular, desire, discipline, the four noble truths, satire		
<div>A study of ZhuBajie in terms of desire</div> <div>Suh, Jung-Hee</div> <p>This paper examines the shapes of desire and their meanings by analyzing ZhuBajie's divers and diverse shapes of desire in terms of Buddhism. In this analysis of ZhuBajie's disciplinary process and its latent meanings, his role and position in <i>Xiyouji</i> is elucidated. Before dealing with ZhuBajie's world of desire and its meanings furthermore, this paper describes some characteristics of ZhuBajie's life and entity because his personal life history is needed to the understanding of desire basically, and looks into his world of desire and its latent meanings through his behaviour and psychology. Through this analysis, it explores the issues of desire in human existence and the ways of freeing from desire deeply. This analysis goes as follows: 1) characteristics of ZhuBajie's life and entity; 2) ZhuBajie as a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secular; 3) ZhuBajie's discipline and its meanings.</p> <p>From those research findings of ZhuBajie's desire in terms of Buddhism, human' sufferings derive from desire, so it presents the way of how to overcome sufferings possibly through the discipline of eradicating desire. Thus, ZhuBajie as a representative of the secular is created as a character full of life by the description of how he is led to discipline himself and of showing the divers and diverse shapes of Desire, Anger, Foolishness which he exposes in the process of discipline. Consequently, the creation of ZhuBajie as a character enhances the literary interest and curiosity in <i>Xiyouji</i>.</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정희 / 徐貞姬 / Suh, Jung-Hee		
	소 속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chsuh@pusan.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6년 08월 14일	심 사 일	2016년 09월 22일
	수 정 일	2016년 09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9일